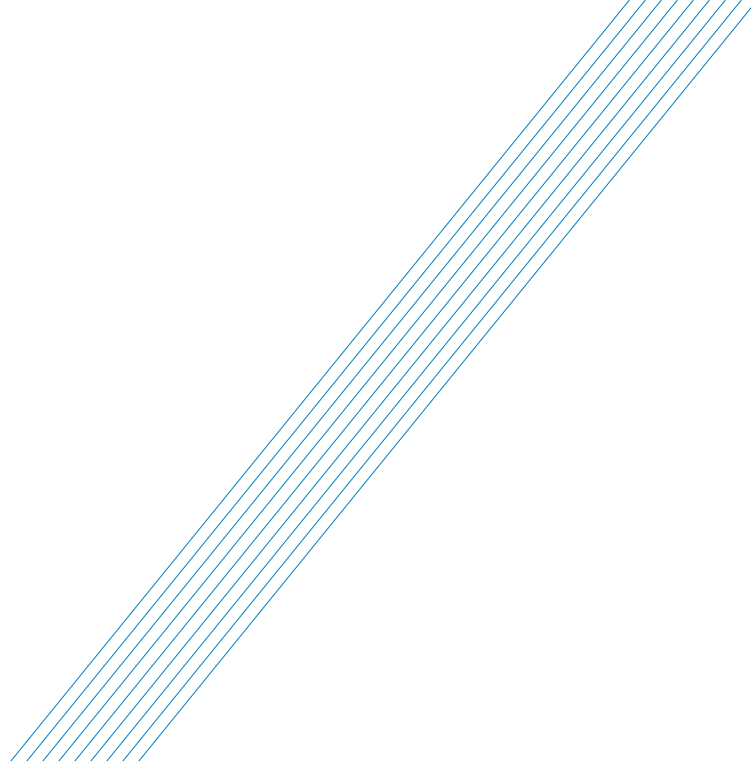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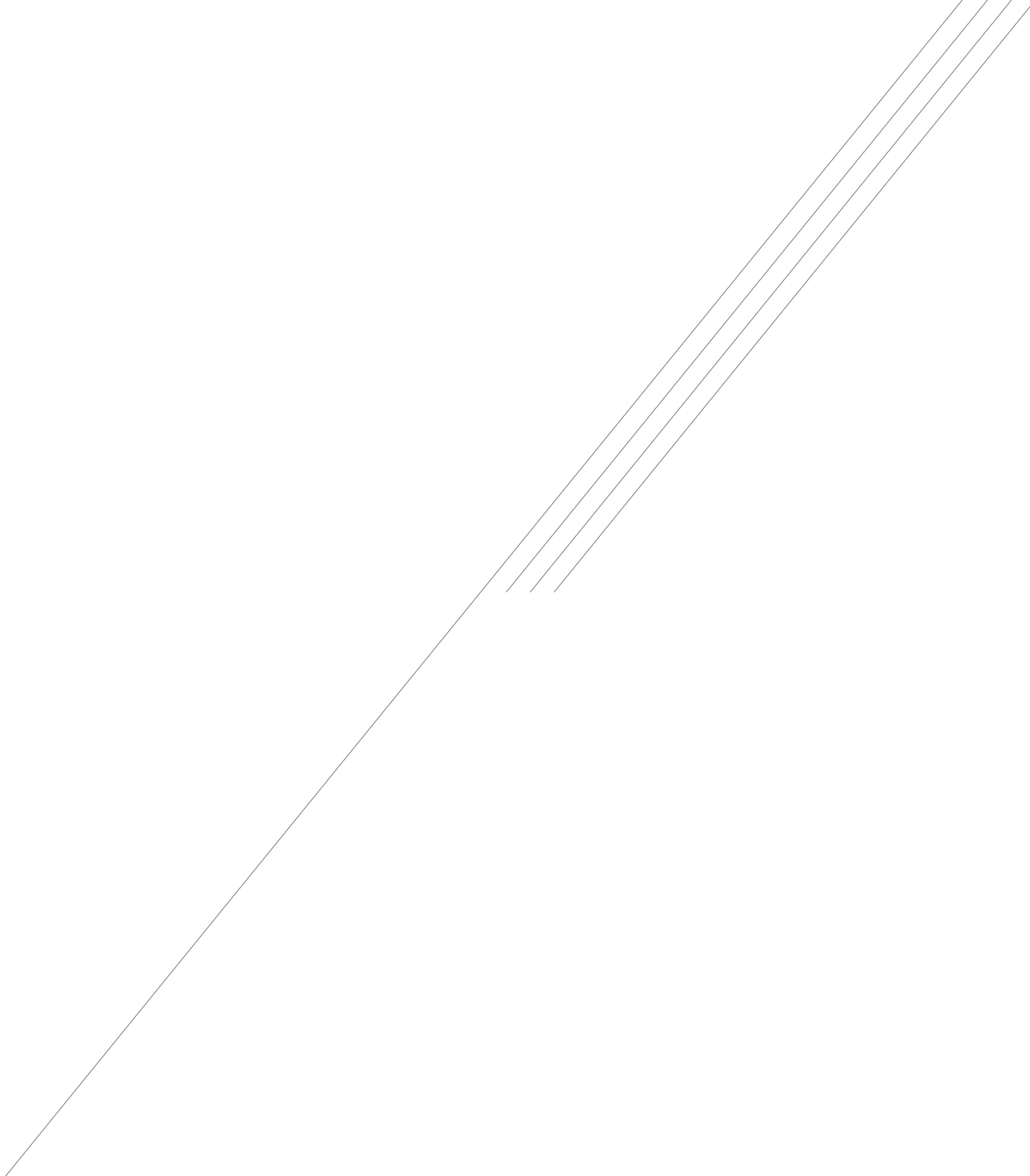




NYPI YOUTH REPORT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

Vol.21 _ 2011. 11. 11 | 이기봉 부연구위원 ●



NYPI YOUTH REPORT

Vol.21 _ 2011. 11. 11 | www.nypi.re.kr

발행일 2011. 11. 11

발행인 이재연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 화 2188-8800

팩 스 2188-8869

인 쇄 양동문화사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

2011. 11. 11 | 이기봉 부연구위원 ●

CONTENTS

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10명 중 8명 '부딪힘/넘어짐/배임사고' 경험, 병원치료 많은 '먹거리사고'와 '교통사고'는 15% 이상 경험. _ 03
2. 청소년의 화재, 교통(자전거타기), 운동/놀이 안전행동 습관 나쁜 편임. _ 04
3. 가정에 비해 학교의 위험요소가 더 많았고,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위험요소가 양부모가정보다 많았음. _ 05
4.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부모, 학교, 교사의 관심도는 비교적 높았음. _ 06
5. 최근 1년 동안 친구/선후배로부터 청소년이 경험한 폭력피해는 약 10% _ 07
6.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폭력을 부모로부터 경험한 경우는 약 10%, 교사로부터 경험한 경우는 15~20% 나타남. _ 08
7. 청소년의 약 10% 이상은 최근 한 달 동안 유해매체 1회 이상 이용 _ 09
8.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10명 중 1명은 '호프집/소주방/카페' 이용경험이 있음(초등학생 제외). _ 10
9. 청소년의 보호행동 습관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임. _ 11
10. 청소년의 약 57%는 학교 및 교사가 위험행동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노력한다고 응답함. _ 12
11.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과 고용금지업소 고용 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50.1%, 22.0% _ 14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

조사개요

○ 조사목적

-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안전, 보호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

○ 조사지역 및 대상

- ▶ 전국 시/도 (제주도 제외)
- ▶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총 9,844명 (초등학생 2,657명, 중학생 3,254명, 고등학생 3,933명) 설문조사

○ 조사방법

-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 면접조사
- ▶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집단면접설문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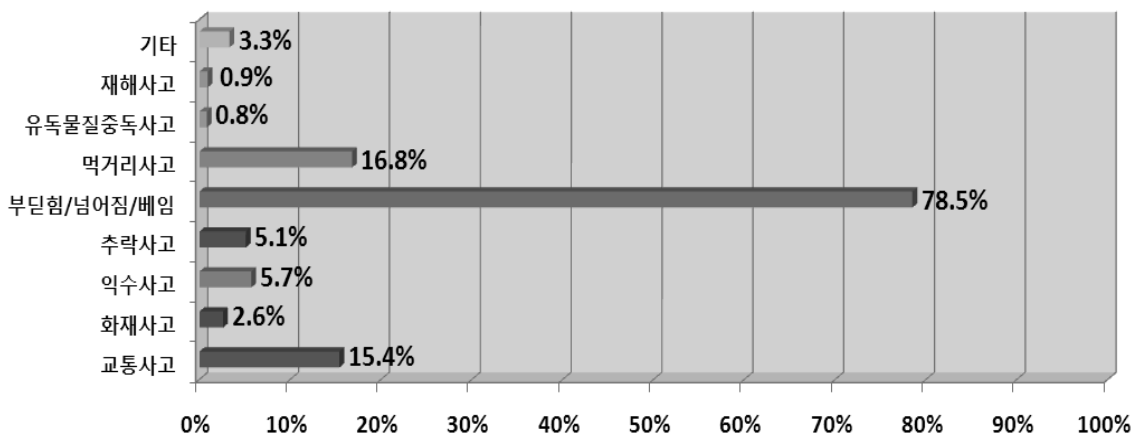
○ 조사기간

- ▶ 2010년 6월 1일 ~ 7월 15일

* 본 조사의 설문지, 코드북, 데이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데이터아카이브홈페이지 (<http://archive.nypi.re.kr>)에서 2012년 1월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10명 중 8명 ‘부딪힘/넘어짐/베임사고’ 경험, 병원치료 많은 ‘먹거리사고’와 ‘교통사고’는 15% 이상 경험.

-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의 사고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부딪힘/넘어짐/베임사고(78.5%)’가 가장 많았고, ‘먹거리사고(16.8%)’, ‘교통사고(15.4%)’가 많은 편이었으며,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는 ‘교통사고(43.3%)’, ‘먹거리사고(41.9%)’가 많아 이러한 사고는 한 번 사고가 났을 경우 상해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성별로는 대부분의 사고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많았고, 교급별로는 대체로 중학교가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양부모가정의 순으로 많았음.



【그림 1】 최근 1년 동안 사고유형별 사고경험 여부(중복응답)

2. 청소년의 화재, 교통(자전거타기), 운동/놀이 안전행동 습관 나쁜 편임.

- 5점 척도로 조사한 평소 청소년들의 안전행동 습관은 식품안전(M=4.13), 가정안전(M=3.96), 학교안전(M=3.43)의 경우 보통(3.0점)보다 좋은 편이었지만, 화재안전(M=2.20), 운동/놀이안전(M=2.90),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M=2.51)은 보통보다 좋지 않았음.
- 청소년의 안전행동 습관은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좋았고, 모든 항목에서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좋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좋았음.

【표 1】 안전행동 지표 영역 및 항목별 평균

영역	번호	문항	평균	영역평균
화재	1	비상문 위치 확인 정도	<u>2.30</u>	<u>2.20</u>
	2	소화기 위치 확인 정도	<u>2.09</u>	
가정	3	전기제품이나 콘센트 만질 때 물 묻은 손 확인 정도	3.95	3.96
	4	가스 사용 후 (중간)밸브 잠금 정도	4.00	
	5	가스/전열기구 사용 중 자리 비우지 않는 정도	3.53	
	6	유독물질 눈/피부 접촉 시 물로 씻어내는 정도	4.26	
	7	날카로운 기구나 공구 제자리 정돈 정도	4.00	
	8	약품 사용 시 제품 확인 정도	4.10	
	9	높은 가구 위 물건 정리 및 전구 교체 시 안전한 의자 이용 정도	3.87	
교통	10	자전거 타기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	<u>1.57</u>	3.30
	11	자전거 탈 때 주변 살핌 정도	3.22	
	12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길 건널 때 자전거 밀고 건너는 정도	<u>2.75</u>	
	13	길 건널 때 횡단보도나 육교 이용 정도	3.62	
	14	횡단보도 건널 때 차 멈춤 확인 정도	3.83	
	15	차가 완전히 멈춘 후 승하차하는 정도	4.19	
	16	하차 시 주변 살핌 정도	3.57	
학교	17	자동차 승차 시 안전벨트 착용하는 정도	<u>2.84</u>	3.43
	18	실험/실습시간에 약품이나 기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정도	4.02	
운동/ 놀이	19	복도와 계단에서 뛰지 않는 정도	<u>2.84</u>	<u>2.90</u>
	20	수영장이나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요원 보이는 곳에서 수영하는 정도	3.05	
	21	운동 전 준비운동 정도	3.09	
	22	운동 전 보호장비 착용 정도	<u>2.06</u>	
식품	23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 정도	3.39	4.13
	24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정도	3.95	
	25	식품 구입 시 포장지의 유통기간 확인 정도	4.10	
	26	유통기간 지난 음식 먹지 않는 정도	4.34	
전체			3.40	

3. 가정에 비해 학교의 위험요소가 더 많았고,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위험요소가 양부모가정보다 많았음.

- 가정의 위험요소에서는 ‘전기선이나 코드가 어지럽게 널려있음 (38.4%)’ 항목에서만 ‘있다’의 비율이 30%를 넘었고, 대부분 20% 미만인 반면, 학교에서는 10개 모든 항목에서 ‘있다’의 비율이 20% 이상이었고,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음’ 항목의 ‘있다’의 비율은 57.1%로 절반이 넘었고,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표시가 없음’ 항목과 ‘가구들이 너무 가까이 배치되어 움직일 때 부딪힘’ 항목은 절반에 가까웠음.
- 가정의 위험요소 중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표시가 없다’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에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2】 가정과 학교의 위험요소 존재여부

단위 :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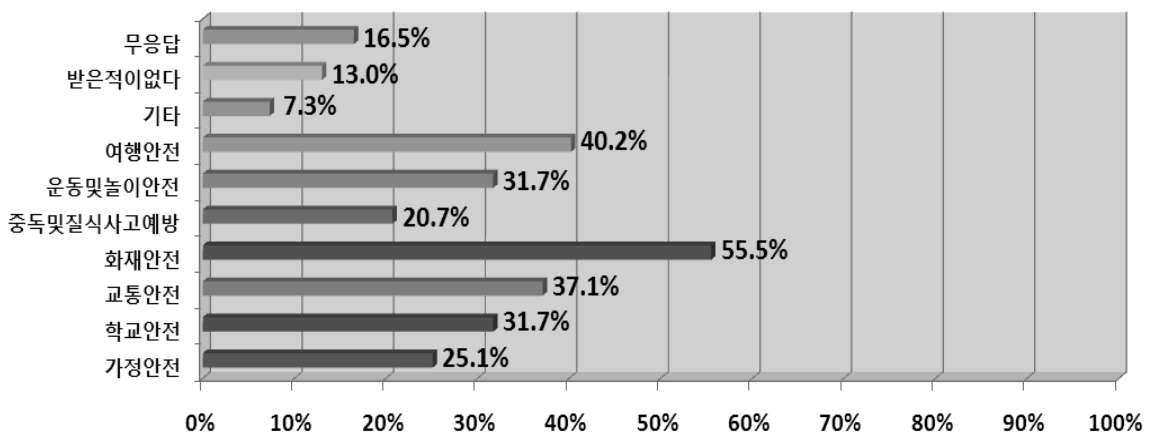
번호	문항	가정	학교
1	쇠조각이나 철사와 같은 날카로운 것 노출	7.4	31.4
2	전기선이나 코드가 어지럽게 널려있음	38.4	26.0
3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패이거나 파손됨	7.1	35.6
4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음	16.1	57.1
5	부서진 가구나 수납장이 있음	9.1	31.4
6	계단이나 난간에 파손된 곳이 있음	3.3	28.0
7	문의 손잡이가 고장나거나 작동하지 않음	8.0	26.7
8	가구(책걸상)들이 너무 가까이 배치되어 움직일 때 부딪힘	16.5	43.8
9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표시가 없음	28.2	49.3
10	조명이 없거나 어두워서 밤에 다니기 어려운 곳이 있음	14.8	31.7
전체		14.9	36.1

4.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부모, 학교, 교사의 관심도는 비교적 높았음.

- 5점 척도로 조사한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부모, 학교, 교사의 관심 정도는 평균 3.6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교사나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안전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가르침 정도가 더 높았으며, 안전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가르침 정도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더 높고 많았음.
- 안전교육 유형별로는 화재안전, 여행안전, 교통안전, 운동/놀이안전 등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응답비율이 30%가 넘게 조사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많이 경험하거나 병원치료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조사된 교통사고, 추락사고, 화재사고 등과 일관성을 보여,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의 유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표 3】 안전에 대한 부모, 학교, 교사의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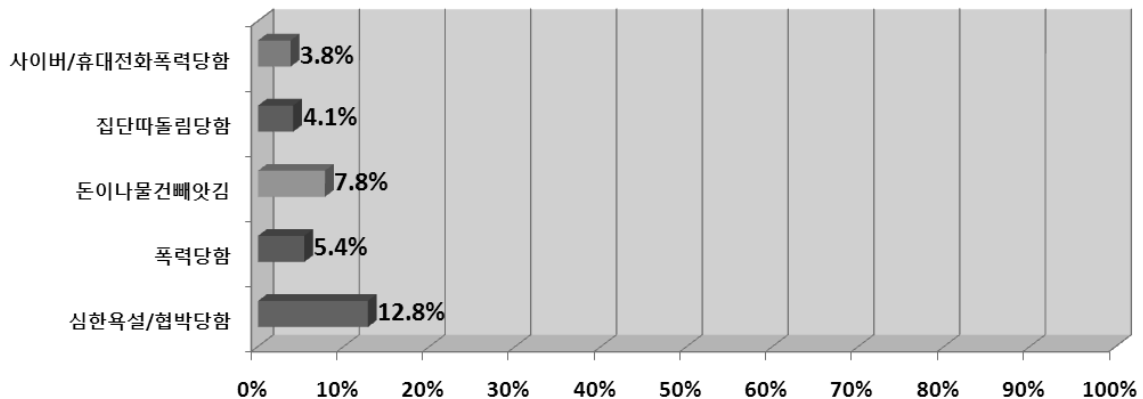
번호	문항	평균
1	부모의 안전에 대한 관심 정도	4.06
2	부모의 안전에 대한 가르침 정도	3.75
3	학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정도	3.39
4	학교 교사의 안전에 대한 관심 정도	3.54
전체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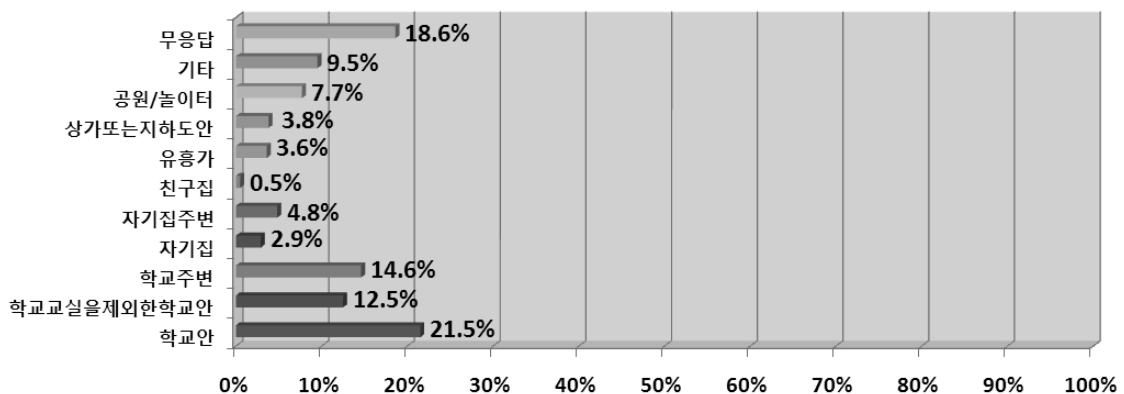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안전교육 수혜여부(중복응답)

5. 최근 1년 동안 친구/선후배로부터 청소년이 경험한 폭력피해는 약 10%

- 청소년들의 최근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폭력피해 경험률은 ‘심한 욕설/협박 당함(12.8%)’, ‘돈이나 물건 빼앗김(7.8%)’, ‘폭행당함(5.4%)’ 순이었음.
- 성별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폭력피해 경험이 많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폭력피해를 많이 받았으며, 조손가정이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보다 폭력피해를 많이 받았음.
-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폭력피해를 경험한 장소는 주로 ‘학교 안(48.6%)’ (학교 교실 안, 학교교실을 제외한 학교 안, 학교주변)이 많았음.



【그림 3】 최근 1년 동안 폭력피해 경험률(중복응답)



【그림 4】 최근 1년 동안 폭력피해 경험장소

6.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폭력을 부모로부터 경험한 경우는 약 10%, 교사로부터 경험한 경우는 15~20% 나타남.

-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신체적 체벌’ 10.8%, ‘심한 욕설’ 10.9% 이었고,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가장 많았음.
- 교사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신체적 체벌’ 19.9%, ‘심한 욕설’ 14.5%이었고,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음.
- 최근 1년 동안 방임(집에서 12시간 이상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을 경험한 아동(초등 4-6년)은 29.3%이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고,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많았음.

【표 4】 최근 1년 동안 부모 및 교사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폭력피해 경험률

단위 : 비율(%)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신체적 체벌 경험		심한욕설 경험	
			부모	교사	부모	교사
전체		100(9,727)	10.8	19.9	10.9	14.5
성별	남자	100(4,793)	10.7	23.7	10.5	16.4
	여자	100(4,925)	10.8	16.1	11.2	12.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9.6	6.5	7.0	4.8
	중학교	100(3,257)	14.0	24.5	13.4	16.4
	고등학교	100(3,794)	8.9	25.3	11.5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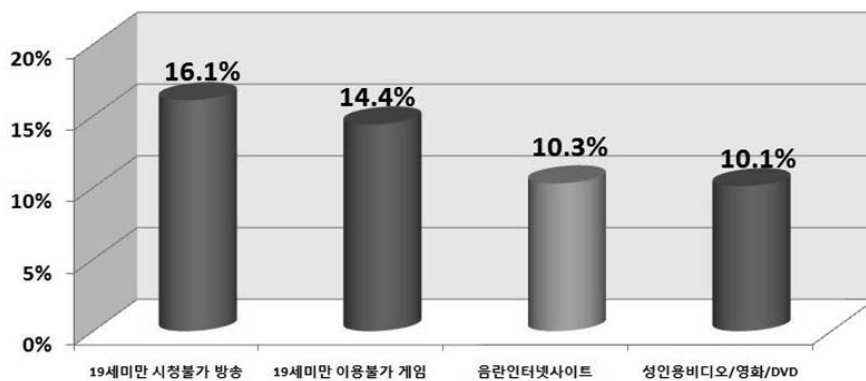
【표 5】 최근 1년 동안 부모로부터 방임 경험 빈도

단위 : 비율(%)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이상	무응답
전체		100(2,643)	62.8	13.4	4.7	3.8	3.4	4.0	7.9
성별	남자	100(1,345)	57.3	15.7	5.8	4.8	3.8	4.9	7.7
	여자	100(1,292)	68.7	11.1	3.6	2.7	3.1	3.0	7.8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62.8	13.4	4.7	3.8	3.4	4.0	7.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2,148)	63.8	13.5	4.8	3.9	2.8	3.7	7.5
	한부모가정	100(163)	57.1	15.3	2.5	3.1	7.4	5.5	9.2
	조손가정	100(54)	59.3	13.0	7.4	5.6	5.6	1.9	7.4

7. 청소년의 약 10% 이상은 최근 한 달 동안 유해매체 1회 이상 이용

- 청소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1회 이상 유해매체를 이용한 경우는 ‘TV에서 보는 19세미만 시청불가 방송(16.1%)’, ‘19세미만 이용불가 게임(14.4%)’, ‘음란인터넷사이트(10.3%)’, ‘성인용비디오/영화/DVD(10.1%)’ 순이었음.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해매체 이용 빈도가 많았고, 교급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이용 빈도가 많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이용 빈도가 많았음.



【그림 5】 최근 한 달 동안 유해매체 이용빈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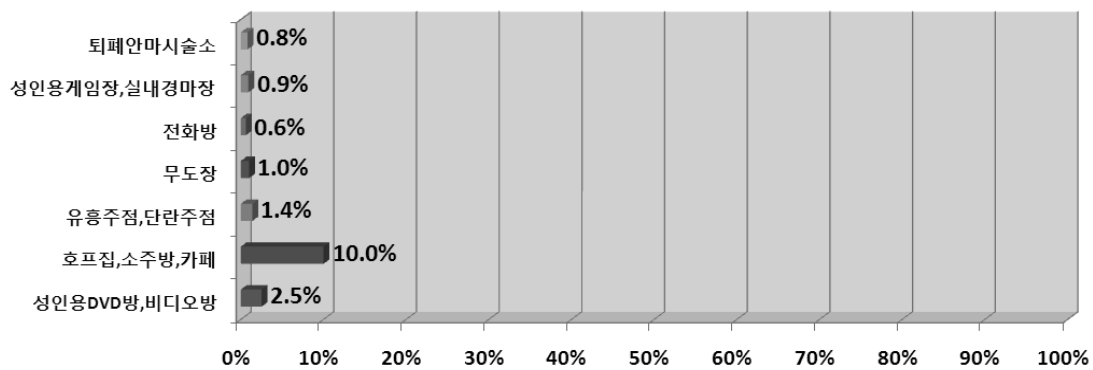
【표 6】 최근 한 달 동안 유해매체 이용 빈도

단위 : 비율(%)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한 달 1회 이상 유해매체 이용률			
			19세미만 시청불가 방송	19세미만 이용불가 게임	음란인터넷 사이트	성인용비디오/영화/DVD
전체		100(9,727)	16.1	14.4	10.3	10.1
성별	남자	100(4,793)	20.3	24.3	17.9	15.5
	여자	100(4,925)	12.0	4.5	3.0	4.8
교급별	초등학교	100(2,643)	4.9	5.4	1.1	2.6
	중학교	100(3,257)	11.6	16.3	10.1	7.1
	고등학교	100(3,794)	27.8	18.9	17.0	18.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128)	15.7	13.7	10.1	9.5
	한부모가정	100(868)	21.6	19.3	12.7	13.8
	조손가정	100(172)	15.7	15.8	9.3	10.5

8.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10명 중 1명은 ‘호프집/소주방/카페’ 이용경험이 있음 (초등학생 제외).

- 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유해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호프집/소주방/카페(10.0%)’, ‘성인용비디오방/DVD방(2.5%)’, ‘유흥주점/단란주점(1.4%)’ 순이었음.
- 교급별로는 대부분의 유해업소 경험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많았음.



【그림 6】 최근 1년 동안 유해업소 이용 빈도(중복응답)

【표 7】 최근 1년 동안 호프집/소주방/카페 이용 빈도

단위 : 비율(%)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이용한 적이 없다	1년에 1~2번 정도	1년에 3~4번 정도	한달에 1~2번	일주일당 1~2번	일주일당 3회이상
전체		100(7,084)	89.7	3.5	2.0	3.1	1.0	0.4
성별	남자	100(3,448)	89.2	3.2	2.2	3.4	1.3	0.4
	여자	100(3,633)	90.2	3.8	1.8	2.8	0.8	0.3
교급별	중학교	100(3,257)	95.9	1.8	0.8	0.7	0.1	0.2
	고등학교	100(3,794)	84.3	4.9	3.0	5.1	1.9	0.5
거주지	서울	100(1,131)	91.2	2.9	2.3	2.6	0.4	0.3
	광역시	100(2,336)	89.5	3.6	2.4	2.8	0.9	0.3
	시·군	100(3,617)	89.4	3.6	1.6	3.4	1.3	0.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5,980)	90.3	3.4	1.9	3.0	0.9	0.3
	한부모가정	100(705)	86.8	4.3	2.4	4.1	1.6	0.4
	조손가정	100(118)	85.6	4.2	2.5	3.4	2.5	0.8

9. 청소년의 보호행동 습관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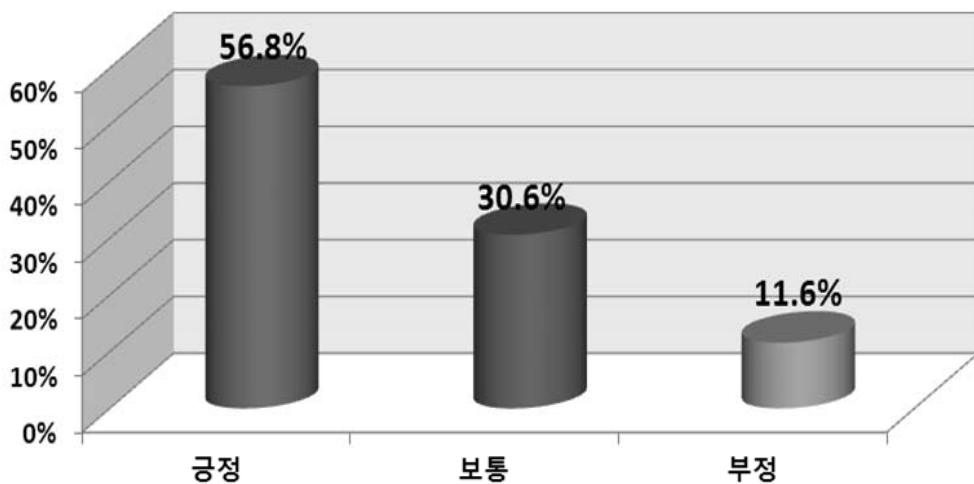
- 5점 척도로 조사한 평소 청소년의 보호행동 습관은 폭력(성폭력), 가출,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모든 영역에서 보통(M=3.0)보다 높은 편이었음.
- ‘위험 상황 대비 호신용 도구 가지고 다니는 정도(M=1.84)’와 ‘고민이 있을 때 주위에 도움 청하는 정도(2.56)’는 보통(M=3.0)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냄.
- 청소년의 안전행동 습관은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좋았고, 모든 항목에서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좋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좋았음.

【표 8】 보호행동 지표 영역 및 항목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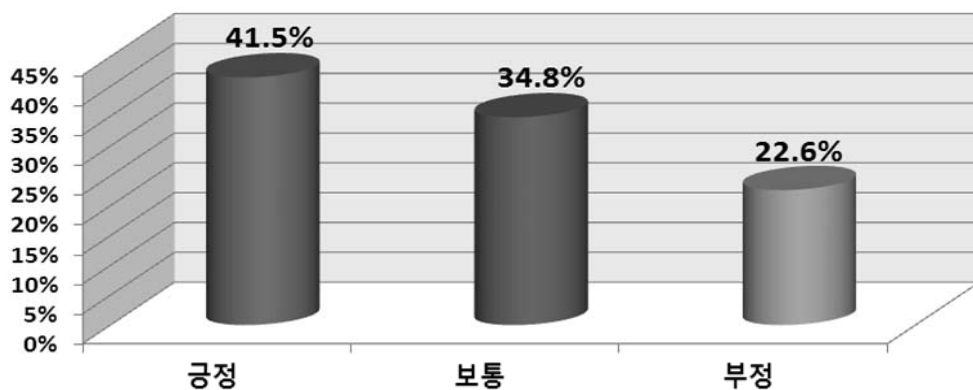
영역	번호	문항	평균	영역평균
폭력 (성폭력)	1	위험한 곳 피해 다니는 정도	3.43	3.14
	2	필요한 만큼만 돈 가지고 다니는 정도	3.61	
	3	위험 상황 대비 호신용 도구 가지고 다니는 정도	1.84	
	4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는 정도	3.14	
	5	폭력 사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69	
가출	6	고민이 있을 때 주위에 도움 청하는 정도	2.56	3.40
	7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3.96	
	8	가출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71	
유해 매체	9	유해매체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4.04	3.95
	10	유해매체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3.86	
유해 약물	11	유해약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4.37	4.26
	12	유해약물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4.15	
유해 업소	13	유해업소 근처 피해 다니는 정도	3.76	3.99
	14	유해업소 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4.21	
	15	유해업소 출입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4.00	
전체			3.62	

10. 청소년의 약 57%는 학교 및 교사가 위험행동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노력한다고 응답함.

- 청소년의 13.5%가 학교 주변의 위험 정도에 대해 위험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청소년의 56.6%와 56.8%가 위험행동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데 학교와 교사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응답함.
- 집 주변의 위험 정도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19.7%가 위험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어른이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에 대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1.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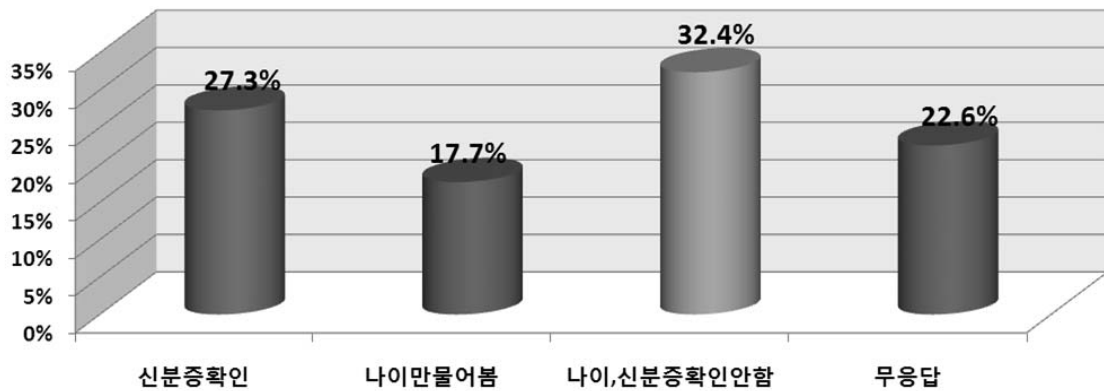
【그림 7】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교사의 노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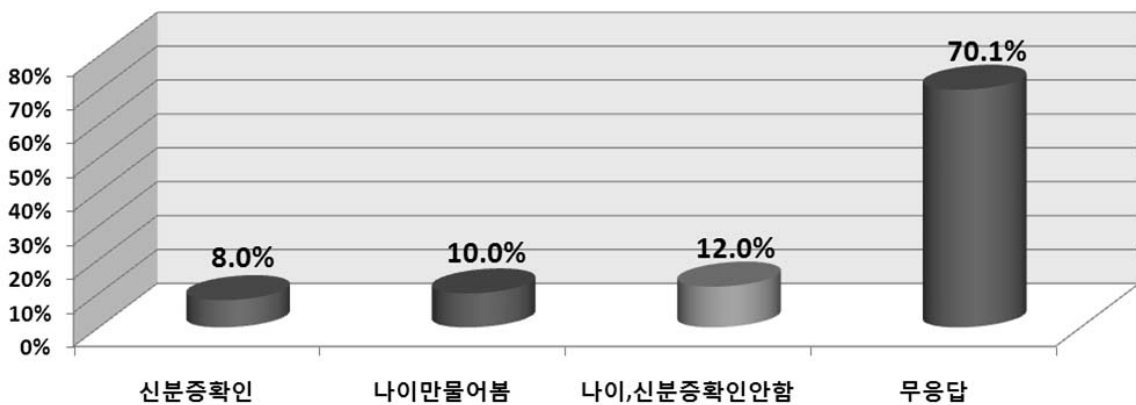
【그림 8】 청소년 위험행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어른의 노력 정도

11.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과 고용금지업소 고용 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50.1%, 22.0%

- 유해업소 출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유해업소 출입 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50.1%로 나타남.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고용될 때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22.0%로 나타남.



【그림 9】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 시 신분 확인 여부



【그림 10】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 시 신분 확인 여부

NYPI YOUTH REPORT 과월호 안내

- 제1호 경제위기와 빈곤
- 제2호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 제3호 글로벌 환경 변화와 청소년
- 제4호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 제5호 청소년 인권
- 제6호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 제7호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 제8호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
- 제9호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
- 제10호 다문화 가정 및 장애아동 · 청소년들의 역량강화
- 제11호 멘토링과 청소년 사회 참여
- 제12호 창의적 체험 활동
- 제13호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
- 제14호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
- 제15호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 제16호 위기아동 · 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 제17호 초 · 중 · 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 제18호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 제19호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
- 제20호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자료집 총 10권 발간 안내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 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
(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 행동

NYPI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전국조사

- 한국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실태조사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조사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조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세대간 가족의식비교조사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비매품〉

본 책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nyp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1 기본연구과제

-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Ⅱ
- 「창의적 체험활동」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방안 연구
- 지역사회중심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시스템 구축 연구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Ⅱ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Ⅱ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Ⅰ
-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청소년 도덕성 발달 검사 도구 표준화 연구Ⅰ
-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한국 아동·청소년 통계데이터 아카이브 콘텐츠 구축사업 Ⅱ

